

대가야교육원 2026년 하반기 선발고사 중2 국어

제 1 교시

국어 영역

○ 문항 수는 25개이며, 문항별 배점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배점은 모두 4점입니다.

()학교 ()학년 이름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몰라도 된다.

너를 좋아하는 마음은
오로지 나의 것이요,
나의 그리움은
나 혼자만의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나는 이제
너 없이도 너를
좋아할 수 있다.

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대상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인식을 중심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⑤ 화자와 대상의 대화체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2. 이 시에 드러난 화자의 인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적 대상이 없어지기를 바란다.
- ② 시적 대상과의 거리가 멀어지기를 희망한다.
- ③ 시적 대상의 말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 ④ 시적 대상이 자신의 사랑과 그리움만큼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 ⑤ 시적 대상의 생각과는 관계없이 대상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

3. 이 시의 3연에 쓰인 핵심적 표현 방법이 활용되지 않은 것은?

- ①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 ② 얻는다는 것은 곧 잃는다는 것이다
- ③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④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⑤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때 말해야 했을까? 아니, 모르겠어. 다시 그때가 된다면 내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아니 그것도 몰라. ①내가 아는 건 내가 말할 수 있었지만 말하지 않은 그 일 때문에 내 삶이 달라졌다는 거야. 그래, 달라졌어.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다른 직업을 가졌겠지. 남을 속이는 교활한 장사꾼? 명령에 충실하게 따르는 군인? 뭘 했을지는 몰라도 지금처럼 그림을 그리고 있지는 않겠지. (중략)

나 혼자 내 재능을 의심하지. 나를 의심해 왔지. 그날 그 일이 있는 뒤부터. 혼자서만,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누구도, 나를 미술의 길에 들어서게 한 아버지도 모르게. 만난 이후 수십 년 동안 내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격려하고 내가 벽에 막혀 더 나가지 못하고 서성거리거나 좌절할 때마다 나를 위로해 준 내 아내도 모르게. 내게 이런저런 상을 안겨준 평론가들, 원로들, 스승들이라고 알 수 있었겠어?

(나) 생각해 봐야겠어. 왜 그 일이 생겨났는지. 그 일은, 그 사건의 썩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라기 시작했어. 그래, 천수기 선생님. 천 선생님이 내 담임 선생님이 되면서부터야. 선생님은 아버지의 초등학교 동창이었어. 졸업생이 스무 명도 안 되는 학교의 동창. 두 사람은 그 졸업생 중에서도 가장 친한 친구였지. 한 사람은 교사가 되었지만 한 사람은 그렇게 되고 싶어 하던 화가가 못 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어. 졸업한 이후 각자 서른 살이 되기까지 만나지 못했지만 서로를 잊지 않고 있었지.

(다) 우리는 주최 측이 확인 도장을 찍어서 준 도화지를 한 장씩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 위해 여기저기로 흩어졌지. 그런데 내 뒤에서 그림을 그리던 녀석, 웃도 지저분하고 검정 고무신을 신은 데다 간장 냄새가 나던 녀석이 기억에 오래 남았어. 그 냄새며 꼴이 싫어서 자리를 옮기려고 했지만 이미 노란 크레파스로 그 앞의 나무와 갈색 나무 교사의 밑그림을 그린 뒤라서 그럴 수도 없었어. 참 그 냄새, 머리가 아프도록 지독했어. 그건 한마디로 하면 가난의 냄새였어.

(라) 왜 안 했을까. 그때 나를 스쳐 가던 그 아이, 그 아이의 표정 때문인지도 몰라. 땀국물이 흐르던 목덜미, 전신에서 풍겨 나던 뭔가 찌든 듯한 그 냄새, 그 너절한 인상이 내 실수와 잘못된 과정을 바로잡는 게 너절하고 귀찮은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을 거야. 어쩌면 그 결과 한 아이가 가지게 될지도 모르는 찌지 못할 좌절감이 내게도 약간 느껴졌는지도 모르지. 상관 없어. 나는 그런 상하고는 담을 쌓고 살아도 행복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것 자체가 싫어.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마)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그 그림은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었어. 풍경은 내가 그린 것과 비슷했지만 절대로, 절대로 내가 그린 그림이 아니야. 아버지가 사 준 내 오래된 크레파스에는 진작에 떨어지고 없는 회색이 히말라야시다 가지 끝 앞부분에 살짝 칠해진 그림이었어. 나는 가슴이 후들후들 떨려서 두 손으로 가슴을 가렸어. 사방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나는 까치발을 하고 손을 최대한 쳐들어서 그림 뒷면의 번호를 확인했어. 네모진 칸 안에 쓰인 숫자는 분명히 124였어. 124, 북한에서 무장간첩을 훈련시킨 그 124군 부대의 124. 그렇지만 그건 내 글씨가 아니었어.

누가, 왜 제 번호를 쓰지 않고 내 번호를 썼을까. 실수로? 이런 실수를 하고, 제가 받을 상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은 거야. 다른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서 제 실수를 모르고 있는 거겠지. 아니야. 그 그림은 구도로 봐서 내가 그렸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아주 가까운 데서 그린 그림이었어. 그 그림을 그린 아이는 천수기 선생님과 함께 다니던 그 아이인 게 틀림없었어. 그러니까 나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라는 거지. 그러면 그 아이는 제가 그린 그림을 봤을 거야. 그런데 왜? 왜 아무 말을 하지 않은 거지? 상품이 필요 없어서? 실수 때문에 처벌을 받을까 봐? 나라면? 나라면 가만히 있었을까?

(바) 왜 내가 그린 작품은 입선에도 들지 않았을까? 비슷한 풍경이고 비슷한 구도인데도? 가만히 그 그림을 보고 있자니 정말 잘 그린 그림이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장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림, 같은 장소에 있었던 나로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부분, 벽과 히말라야시다 사이의 빈 공간의 처리는 완벽했어. 나는 모든 걸 그림 속에 옥여넣으려고만 했지 비율 줄은 몰랐어. 그건 나를 뛰어넘는 재능인 게 분명했어.

(사) 그 뒤부터 나는 늘 나를 의심하면서 살았어. 누군가 나보다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누군가 나와 똑같은 대상을 두고 훨씬 더 뛰어난 작품을 그렸고, 앞으로도 더 뛰어난 작품을 그릴 수 있다는 생각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라도, 그게 포스터물감으로 그리는 반공 포스터라도 내가 가진 능력 전부를, 그 이상을 쏟아부어야 했지. 언제나, 어디서나. 그 결과가 오늘의 나일까. 의심의 결과, 좌절의 결과, 누군가 내 비밀을 알고 있다는 생각의 결과.

나는 화가가 된 후 풍경화를 그린 적은 없어. 나는 그림의 원형, 본질로 돌아갔어. 선과 원, 점, 그리고 바탕이 되는 사물의 원형, 본질을 최대한 추상화하고 이상화한 형태로 만들어 갔어. 내 모든 색깔의 원형은, 이상은 그날 그 하얀 시멘트 길과 그 위의 흰 햇빛이야.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모음으로 묶인 것은?

-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중간이다.
-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발음한다.

- ① ㅏ, ㅓ ② ㅓ, ㅕ
 ③ ㅓ, ㅕ ④ ㅓ, ㅡ
 ⑤ ㅓ, ㅗ

11. 자·모음에 대한 설명 중 알맞은 것은?

- ① 모음은 공기의 흐름에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이다.
 ② 말의 뜻을 구별해 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단어라 한다.
 ③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중모음이라고 한다.
 ④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소리 내는 평순 모음과 그렇지 않은 원순 모음으로 나뉜다.
 ⑤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쪽에 있는 전설 모음과 뒤쪽에 있는 후설 모음으로 나뉜다.

12. 길게 소리 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눈이 펄펄 내렸지만 ㉡배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어두컴컴한 ㉢굴 속으로 들어가자 ㉣벌들의 공격이 시작되었다.
 정신없이 뺨머리를 돌려 그곳을 빠져나왔지만 이미 그의
 ㉤발은 벌침에 쏘여 퉁퉁 부어 있었다.

- ①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 ㉥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흔들리는 나뭇가지에 꽃 한번 피우려고
 ㉠눈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멈추지 않았으랴

싸그락 싸그락 두드려 보았겠지

㉡난분분 난분분 춤추었겠지

미끄러지고 미끄러지길 수백 번,

㉢바람 한 자락 불면 희 날아갈 사랑을 위하여

햇솜 같은 마음을 다 퍼부어 준 다음에야

㉣마침내 피워 낸 저 황홀 보아라

봄이면 가지는 ㉤그 한번 댄 자리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를 터뜨린다.

- 고재중, '첫사랑'

13. 이 시의 형상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 ① 청각적, 시각적 심상을 활용하며 눈이 내리는 모습을 그려보이고 있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뀌는 자연 현상에서 첫사랑의 의미를 떠올리고 있다.
 ③ 직유와 은유, 의인화 등 비유를 통해 표현 대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이고 있다.
 ④ 반복과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 운율로 계속되는 눈의 도전 행위를 표현하고 있다.
 ⑤ 서로 다른 두 개의 상황의 대조를 통하여 화자의 욕망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14. 윗글을 읽은 후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의 순리와 인간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군.
 ② 사랑이 끝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군.
 ③ 자연의 섭리 속에서 인간은 참으로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리는군.
 ④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랑을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해.
 ⑤ 다음에 만날 사랑 앞에서는 더욱 성숙한 모습일 수 있으니 시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

15. <보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보기>

일상적인 언어와 작가의 상상력이 만나면 아름다운 문학 작품이 탄생한다. 이처럼 언어를 매개로 하여 주제를 전달하는 문학 작품은 그 특성과 형상화 방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로 나뉜다. 그중 자신의 정서를 주관적으로 드러내는 문학 양식을 서정 갈래라 한다. 서정 갈래는 화자를 내세워 기쁨, 슬픔, 사랑, 그리움 등과 같은 정서를 함축적이고 운율이 있는 언어로 형상화하여 독자에게 전달한다. 한국 문학의 서정 갈래는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민요, 한시, 현대시 등이다.

- ① 눈과 나뭇가지를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을 통해 시적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
- ② 2연은 동일 시어와 문장 형식의 반복을 통해 눈의 부단한 노력을 형상화한다.
- ③ 작가는 자신이 경험한 눈꽃의 아름다움을 독자들에게 사실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눈꽃의 황홀함과 봄꽃의 개화를 대하는 화자의 놀라움과 감동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⑤ ‘눈, 꽃’은 사전적인 뜻을 넘어서 첫사랑의 간절함과 아름다움 등의 뜻을 함축하고 있다.

16. ㉠~㉣와 관련하여 위 작품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 ① ㉠ : 눈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것은 그만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하기 때문이겠군.
- ② ㉡ : 한자어를 의태어처럼 사용하여 어지럽게 흩날리는 눈의 모습을 형상화했군.
- ③ ㉢ : 눈이 그토록 간절하게 이루려고 하는 것이 어찌면 허망한 것일 수 있겠군.
- ④ ㉣ : 눈이 만들어낸 황홀함에 대한 화자의 감동을 명령형 어미를 이용하여 표현했군.
- ⑤ ㉤ : ‘(불에) 덴 자리’를 남기는 것으로 보아 봄에 꽃이 피는 것은 가자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겠군.

(17-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세종 대왕이 창제한 한글은 자음자 열일곱 자 모음자 열한 자, 총 스물여덟 자로 구성된 문자이다.

자음자를 만든 원리의 큰 특징은 ‘상형의 원리’라는 점이다. 첫 번째 기본 자음자 ‘ㄱ’은 혀뿌리가 (㉠)을 막는 모양을 본떴다. 두 번째 기본 자음자 ‘ㄴ’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떴다. 세 번째 기본 자음자 ‘ㄷ’은 입의 모양을, 네 번째 기본 자음자 ‘ㄱ’은 이의 모양을, 마지막 다섯 번째 기본 자음자 ‘ㅇ’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나) 모음자의 기본자는 석 자이다. 모음자에는 심오한 철학이 담겨 있는데, ‘ㅡ’는 세상에 처음 존재한 하늘을 뜻하고, ‘ㅣ’는 그 모양처럼 평평하니 땅을 뜻하고, ‘ㅗ’는 하늘과 땅 다음에 생겨난 사람을 나타낸다. 하늘, 땅, 사람, 즉, 천지인(天地人)을 본떠서 모음자의 기본자를 만들었다.

(다) 자음자의 기본자가 다섯, 모음자의 기본자가 셋. 훈민정음의 글자 수는 어떻게 스물여덟 자가 되었을까. 그 비밀은 획을 더하고 글자를 합한 원리에 있다.

(라) 자음자의 경우, 소리가 (㉡)에 따라 기본자에 획을 (㉢)했다. 가획된 자음자와 그 기본자는 발음할 때 소리 나는 (㉣)가 같다. 세종 대왕은 기본 다섯 자로 총 열일곱 자의 자음자를 완성하였다.

(마) 모음자는 기본자를 합하여 만들었다. 이런 방식으로 기본 석자인 모음자가 총 열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한글은 최소의 기본자를 만들고, 나머지는 기본자에서 규칙적으로 확대해 나간 간결하면서도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이다.

17. ㉠~㉣의 ()안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 ① ㉠ : 목구멍 ㉡ : 약해짐 ㉢ : 추가 ㉣ : 위치
- ② ㉠ : 목구멍 ㉡ : 세짐 ㉢ : 추가 ㉣ : 위치
- ③ ㉠ : 목구멍 ㉡ : 약해짐 ㉢ : 삭제 ㉣ : 위치
- ④ ㉠ : 입천장 ㉡ : 세짐 ㉢ : 추가 ㉣ : 위치
- ⑤ ㉠ : 입천장 ㉡ : 세짐 ㉢ : 추가 ㉣ : 세기

18. 자음자를 만든 원리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 ① ㄱ ② ㅊ
- ③ ㅈ ④ ㅋ
- ⑤ ㅍ

19. 아래 설명에 해당하는 글자는?

- 초성(첫소리)과 중성(가운뎃소리)으로 구성되어 있다.
- 초성은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을 본뜬 글자이다.
- 중성(가운뎃소리)은 ‘ㅣ’에 ‘·’를 두 번 합하여 만든 글자이다.

- ① 나 ② 나
③ 옷 ④ 러
⑤ 만

20. 내용이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ㄷ’은 ‘ㄴ’에 가획하여 만들어졌다.
② ‘ㅍ’는 ‘ㅍ’에 ‘ㅡ’를 합쳐 만들었다.
③ ‘ㅎ, ㅌ, ㅍ, ·’ 등은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다.
④ 세종대왕이 만든 자음자와 모음자의 수는 총 28자이다.
⑤ ‘현’은 초성 ‘ㅎ’, 중성 ‘ㄴ’, 종성 ‘ㄴ’ 이 더해져 만들어진 글자이다.

21. 다음은 훈민정음 해례본의 서문이다. 이를 보고 나눈 학생들의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끝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우주 : 세종대왕님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다름을 알고 계셨어.
② 바다 :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맞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지.
③ 하늘 : 그리고 문자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고통을 인식하고 계셨어.
④ 장미 : 거기에 훈민정음의 반포를 반대하는 일부 양반층을 꾸짖는 것도 잊지 않으셨지.
⑤ 노을 : 세종대왕님 덕분에 누구나 쉽게 글자를 익히고 날마다 쓸 수 있게 되었어. 이런 면에서 훈민정음은 참 실용적이야.

(22-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동양 철학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논의 즉, 인성론이 매우 발달했다. 동양 철학에서 논의되었던 인성론은 인간의 본성을 선과 악이라는 윤리적 범주와 관련지었다.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주장하는 맹자(孟子)의 인성론도 이 중의 하나다.

맹자의 인성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고자(告子)의 인성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자는 식욕과 색욕이라는 생리적 욕망을 본성이라고 하였다. 생리적 욕망은 인간이나 동물이 다함께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이 생리적 욕망 자체를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소용돌이치는 물 자체에는 동쪽이니 서쪽이니 하는 방향의 구분이 원래 없어서 동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면 동쪽으로 흘러가고, 서쪽으로 흘러가도록 하면 서쪽으로 흘러가듯이, 사람에게도 선과 악이라는 구분이 원래 없었던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장인(匠人)이 버드나무로 바구니를 만들 때 버드나무 속에 본래 바구니가 들어 있지 않은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는 선이나 악의 성질이 들어 있지 않다고 하였다. 장인의 손길로 버드나무에서 바구니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인간의 선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맹자는 물에 동서는 없어도 상하가 있어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인성에는 선(善)으로 향하는 본래적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 버드나무에 헐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구니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인간에게는 도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덕성이 있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학습을 시키는 것이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리적 본능은 본성으로 보지 않고, 인간만이 독특하게 지닌 도덕성이 있다고 보고 이것만을 본성으로 여겼다.

맹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인(仁)의 단서, 불의(不義)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의(義)의 단서, 사양하는 마음을 예(禮)의 단서, 옳고 그름을 가려낼 줄 아는 마음을 지(智)의 단서라고 하였다. 이 네 가지 단서, 즉 사단(四端)은 인간에게 사지(四肢)가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지니고 있는 것이다. 또 인간은 사단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을 즉각적으로 가려낼 줄 아는 선천적 능력도 지니고 있다고 보았다. 즉 생각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양지양능(良知良能)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사단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도 모든 인간이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단을 잘 길러 낼 것을 의식적으로 반성(思)하여 스스로 이를 확충하고 길러 내면 성인, 군자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감각적, 생리적 욕구에 이끌려서 사단을 무시해 버

리고 내버리면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맹자는 악의 원인을 자포자기(自暴自棄)에 있다고도 하였다. 이러한 맹자의 생각은 인간 스스로가 바른 도덕성을 길러 갈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2. 위 글에 제시된 ‘맹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성에는 선으로 향하는 본래적 성향이 있다.
- ② 인간에게는 도덕적 행동을 할 수 있는 덕성이 내재해 있다.
- ③ 사단을 지니고 태어나면 누구나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된다.
- ④ 인의예지의 단서는 동물에게는 없는 인간만의 독특한 본성이다.
- ⑤ 사단을 무시해 버리고 내버리면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된다.

23. [A]와 <보기>의 내용을 비교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인간이 타고난 그대로의 자연스런 본능이 성품(性品)이며, 인간이 후천적인 노력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것이 인위(人爲)이다. 즉 배고프면 먹고 싶고 피곤하면 쉬고 싶은 것이 성품이라면, 배고파도 어른에게 양보하고 피곤해도 어른을 대신해 일하는 것은 인위이다. 그러므로 자연스런 본능을 따르게 되면 반드시 다투고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지만, 스승의 교화를 받아 예의 법도를 따르게 되면 질서가 유지된다. 따라서 인간의 성품은 악하나, 인위로 인해 선하게 된다.

- ① [A]와 <보기>에서는 모두 의도적인 교육을 중시하고 있군.
- ② [A]와 <보기>에서는 모두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보고 있군.
- ③ [A]와 달리, <보기>에서는 인간은 모두 성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군.
- ④ <보기>와 달리, [A]에서는 인간에게는 타고난 본성이나 본능이 있다고 보고 있군.
- ⑤ <보기>와 달리, [A]에서는 인간이 인격적으로 바른 사람이 되는 바탕을 선천적인 것으로 보고 있군.

(24-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양반이란, 선비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다.

<중략>

양반은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밤낮으로 울기만 하였다. 그의 아내가 양반을 몰아붙였다.

“당신은 평소에 글 읽기만 좋아하더니, 환곡을 갚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려. 쫓쫓, 양반이라니……,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놈의 양반!”

그때 그 마을에 사는 부자가 그 양반의 소문을 듣고 가족과 의논하였다.

“양반은 아무리 가난해도 늘 귀한 대접을 받고, 우리는 아무리 잘살아도 항상 천한 대접을 받는다. 양반이 아니므로 말이 있어도 말을 타지 못한다. 또한 양반만 보면 굶질거리며 제대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뜰아래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를 땅에 박고 무릎으로 기어가야 한다. 우리 신세가 가엾지 않느냐? 지금 저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서 아주 난처하다고 한다. 그 형편으로는 도저히 양반의 신분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의 양반을 사서 양반 신분으로 살아 보자.”

부자는 곧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승낙하였다. 부자는 즉시 관청에 가서, 양반 대신 환곡을 갚았다.

군수는 양반이 천 섬이나 되는 환곡을 모두 갚자 몹시 놀랐다. 군수는 환곡을 갚게 된 사정을 알아보려고 양반을 찾아갔다. 그런데 뜻밖에 양반이 병거지에 잠방이를 입고, 길에 엎드려 ‘소인(小人), 소인.’ 하며 자신을 낮추지 않는가? 그뿐만 아니라 양반은 감히 군수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군수가 깜짝 놀라 양반을 붙들고 물었다.

(나) 건륭(乾隆) 10년(1745년, 영조 21년) 9월에 이 증서를 만드노라.

이 문서는 천 섬으로 양반을 사고팔아서 환곡을 갚은 것을 증명한다.

양반이란 여러 가지로 일컬어진다. 글을 읽으면 선비라 하고, 벼슬을 하면 대부(大夫)라 하고, 덕이 뛰어나면 군자라고 한다. 무관은 서쪽에 늘어서고 문관은 동쪽에 늘어서는데, 이것이 바로 양반이다. 따라서 선비, 대부, 군자, 무관, 문관 가운데서 좋을 대로 부르면 된다.

더러운 일을 딱 끊고, 옛사람을 본받고, 높은 뜻을 가져야 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등잔을 켜고서, 눈은 가만히 코끝을 내려 보고 발꿈치를 궁둥이에 모으고 앉아, 얼음 위에 박 밀 듯이 <동래박의(東萊博義)>를 줄줄 외워야 한다. 배고픔과 추위를 참고 견디며, 가난 타령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어금니를 딱딱 마주치고 뉘통수를 툭툭 두드리며, 침을 입안에

머금고 가볍게 양치질하듯이 삼켜야 한다. 소맷자락으로 털모자를 닦아 먼지를 털어 내어, 모자에 물결무늬가 뚜렷하게 해야 한다. 세수할 때는 주먹으로 비비지 말고, 입 냄새가 나지 않게 이를 잘 닦아야 한다. 소리를 길게 뽑아서 종을 부르며, 신발을 땅에 끌듯이 느릿느릿 걸음을 옮겨야 한다.

(다) 호장(戶長)이 증서를 다 읽고 나자, 부자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한참이나 멍하니 있다가 말하였다.

“양반이라는 게 겨우 요것뿐입니까? 저는 양반이 신선 같다고 들었는데, 정말 이렇다면 너무 재미가 없는걸요. 원하옵건대 제게 이익이 되도록 문서를 고쳐 주십시오.”

(라) 하늘이 백성을 낳을 때 넷으로 구분하였다. 네 가지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것이 선비이니, 이것이 곧 양반이다. 양반의 이익은 막대하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하지 않는다. 글만 대충 읽어도 크게 되면 문과(文科)에 급제하고, 작아도 진사(進士)가 된다. 문과의 홍패(紅牌)는 팔뚝만 하지만, 여기에 온갖 물건이 갖추어져 있으니, 그야말로 돈 자루이다. 서른여야 진사가 되어 첫 벼슬을 얻더라도, 오히려 이름난 음관(蔭官)이 되어 높은 벼슬자리에 오를 수 있다. <중략> 벼슬을 아니 하고 시골에 묻혀 살더라도 모든 일을 제멋대로 할 수 있다. 강제로 이웃의 소를 끌어다 먼저 자기 땅을 갈고, 마을의 일꾼을 잡아다 먼저 자기 논을 갈고, 누가 감히 나에게 대들겠느냐?

(마) 부자는 증서 내용을 듣고 있다가 혀를 내둘렀다.

④“그만두시오, 그만두시오. 참으로 맹랑하구먼.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 작정입니까?”

부자는 머리를 흔들면서 떠나 버렸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다시는 양반이 되고 싶다는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 박지원, <양반전>

24. 작품에서 ㉠가 갖는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ㄱ. 생각보다 우월한 지위를 기반으로 나온 말이다.
 ㄴ.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ㄷ. 직접 말하기 어려운 대상에 대해 간접적으로 풍자하고 있다.
 ㄹ.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여 풍자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5.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위 글의 작가가 고려했을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선비란 것은 하늘이 내린 벼슬이며, 선비[士]의 마음[心]은 곧 지(志)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뜻이란 어떠한 것인가. 첫째, 권세와 이익을 꾀하지 말 것이니, 선비는 몸이 비록 높아지더라도 선비에서 떠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몸이 비록 곤궁하더라도 선비의 본분을 잃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지금 소위 선비들은 명절(名節)을 닦기에는 힘쓰지 않고 부질없이 문벌(門閥)만을 이득의 기회로 여겨 그의 세덕(世德)을 팔고 사게 되니, 이야말로 저 장사치에 비해서 무엇이 낫겠는가. 이에 나는 이 양반전을 써 보았노라.”

- 박지원, 『방경각외전』-

- ① 신분 제도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평민들의 근대 의식을 고취해야 해.
 ② 목민관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해. 같은 양반의 편에 서서 양반만 두둔해서는 안 되지.
 ③ 양반들은 경제적으로 무능해서는 안 돼.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의지가 약해지고 결국 뜻을 바로 세울 수 없을 거야.
 ④ 양반의 위세를 내세워 사리사욕을 탐해서는 안 되지. 진정한 양반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해.
 ⑤ 나라의 근본은 백성이므로 공허한 관념과 명분에 얽매인 고루한 의식을 버리고 진실로 백성을 사랑하는 인물이 등용되어야 해.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세요. 수고했습니다.